

광양시 택지 개발 활성화 골머리

와우지구·광영의암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수자 못찾아 도시개발 차질

대출 알선에 직원 판매 승진 가산점 등 분양률 높이기 총력전 펼쳐

광양시가 택지 개발 활성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택지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직원들을 판촉 사원으로 활용, 택지 판매 인센티브로 승진 가산점을 제공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볼 필요가 쉽지 않아서다.

◇미분양 택지 판매 총력=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택지 분양률 높이기 총력을 쏟고 있다. 두 택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형 도시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와우지구(63만6550㎡)의 경우 공동주택용지(2필지·1만5894㎡)가 지난 2015년 이후 2년째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2차례의 분양 공고와 수의계약 절차에도 나서는 건설사가 없는 상태다.

광영·의암지구(54만6161㎡)도 비슷한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용지(2필지·9만6061㎡) 분양 공고를 2차례 냈지만 매수자가 없는 실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와우지구 664억, 광영·의암지구 507억 등 1171억원 정도가 묶여있는 셈이다. 분양이 늦어질수록 도시 개발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섬진강변을 따라 와우지구는 9777명(3620세대), 광영·의암지구는 6839명(2533세대)이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하면 3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는 게 광양시 구상이다.

광양시가 매수자를 소개하는 부동산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분양대금의 0.1~0.6%) 지급, 택지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을 알선하는 '혜택' 등을 제시하며 판매에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와우지구(위)와 광영·의암지구 조감도. 광양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와우지구를 3620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발을 진행중이며 광영·의암지구에는 2533세대가 들어서는 택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광양시 제공>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택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투자 차익도 없고 승진 가산점도 받고?'=광

양시가 올 해 초 부서별로 택지 매각 실적에 따라 최대 2점의 실적 가점을 주는 '근무평정제도' 시행에 들어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실적을 종합, ▲1필지 또는 매매대금 2억원 미만이면 0.5점 ▲2필지나 매매대금 2억~5억원 미만이면 1점 ▲3필지나 5억~10억원 미만은 매각하면 1.5점 ▲4필지 이상이나 매매대금 10억원 이상이면 2점을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했다.

도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개발에 공무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승진 가산점 제도를 마련했다는 게 광양시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도 한때 직원들을 판촉 사원으로 활용, 투자자를 찾아낼 경우 분양 대금의 0.5%를 인센티브로 주는 '1인 1필지 매각책임제'를 도입한 바 있다.

공무원들의 판매 촉진 활동 덕분에 와우지구의 경우 현재 분양률이 89.8%까지 올라섰고 단독주택용지 분양은 마무리된 상태다. 광영·의암지구도 올해 초 14%에 불과했던 분양률이 52%까지 늘어난 상태다.

광양시는 2개 도시개발지구와 관련, 직접 택지를 사거나 지인을 통해 매각에 성공한 공무원을 5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24명은 1필지씩 모두 24필지를 자신의 명의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된 단독 주택용지를 털어내 도시 개발을 앞당긴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택지 매각까지 승진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택지를 사들였다가 투자 차익을 얻게될 경우 또다른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가 개발중인 택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독려한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범사랑타운 조성 사업 효과 톡톡 산뜻해진 통학로·골목길...불안감 '훌훌'

오늘 범사랑타운 준공식

#광양에 사는 고등학생 A군은 학교를 갈 때마다 수풀이 우거져 있고 폐가가 많은 통학로를 다니기가 두려웠다. 폐가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등 탈선을 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어 조심해야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광양시의 '범사랑타운' 조성 사업에 따라 마을이 달라지면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수풀과 통학로를 구분하는 펜스가 조성됐고 펜스 위에는 따뜻한 색깔의 안심등이 달렸다. 후미진 곳에는 CCTV와 신고용 비상벨이 설치되었고 폐가에는 출입 차단막도 설치됐다.

법무부는 20일 광양시 광영동에서 '광양 범사랑타운' 준공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광양 범사랑타운은 외진 골목길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셉테드 사업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범위로 특정 범죄발발 지역이 아닌 동(洞) 전체 단위로 확대한 '2세대 사업'의 첫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 2월 광영동을 사업지로 선정한 법무부는 그간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과 CCTV·보안등 위치 재점검, 법교육 강연, 안전한 마을 만들기 포스터 대회, 자원봉사자 범죄예방 캠페인 등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주민상담·현장분석을 바탕으로 광양시와 설계안을 마련해 CCTV·반사경·통학로 펜스·차단시설·신고용 비상벨·안심 주소판 등 환경개선 공사를 마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준공식에서 범사랑타운 사업의 의미와 자원봉사자 등 주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범사랑타운' 조성 전·후 모습 비교해보니



어두운 통학로



차단 펜스와 안심등 설치



수풀 우거지고 지지분한 도로



옹벽 정비와 도로 도색해 걷고 싶은 거리로



관리안돼 후미진 지하 주차장



출입 차단막 설치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공청회 또 무산

환경단체 반발 행사장 점거

건립 놓고 주민간 갈등 심화

바이오 연료인 우드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양시의 갈등 중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2차 주민 공청회가 지난 17일 오후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릴 계획

이던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행사장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 200여명은 이날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서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건립 반대를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행사장으로 들어와 단상을 점거했으며 공청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양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로 인한 지역민 간 갈등과 분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소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슷한 시각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발전소유치 추진준비위원회가 찬성 집회를 열었다.

지역 상공인이 포함된 유치추진준비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주장하며 발전소 유치에 적극하고 있는 상태다.

광양그린에너지는 6800억원을 들여 광양 황금일반산단 내 부지(14만3653㎡)에 바이오 연료인 우드펠릿을 원료로 사용하는 22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진행중이다.

광양 그린에너지 측은 주민설명회를 세차례 열고 5·8월 공청회를 열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환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 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병행
 보라안과 병원 문귀형 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중 원장 | 수원지구 관절척추병원
 인 하루 치과 이광훈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 21 병원 양태영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 분 비 내 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 필수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냉·난방비 절감효과!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마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 062-5 3 1-3530